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4월 20일(월)

관련자료: 사진자료

2026 WEC 개막전 '이몰라 6시간' 완주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성공적으로 데뷔

- GMR-001 하이퍼카 #17 및 #19 차량 모두 레이스 완주하며 목표 달성
- 이몰라 서킷의 높은 트랙 난이도와 치열한 경쟁에도 안정적 레이싱 운영
- 차량 완성도와 운영 능력 등 향상 위한 실질적 경험 및 데이터 축적 성과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국제자동차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이하 FIA)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 레이스 'FIA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제네시스는 소속 레이싱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enesis Magma Racing)'이 현지시간 17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Emilia-Romagna) 이몰라에서 열린 2026 WEC 개막전 '이몰라 6시간(6 Hours of Imola)' 최상위 등급인 하이퍼카 클래스에 출전해 GMR-001 하이퍼카 #17 차량과 #19 차량 모두 레이스를 완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인 하이퍼카 클래스에는 페라리, BMW, 도요타, 애스턴 마틴, 캐딜락을 비롯해 총 8개 제조사에서 17대의 차량이 출전했으며, 그 중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17 차량과 #19 차량은 각각 211랩과 189랩으로 15위와 17위를 기록했다. 우승은 6시간 동안 총 213랩을 완주한 도요타 레이싱이 차지했다.



PRESS RELEASE

이몰라 6시간은 6시간 동안 세 명의 드라이버가 교대해가며 동일한 차량으로 4,909km 길이의 이몰라 서킷을 쉬지 않고 반복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종료 시점에서 서킷을 가장 많이 돈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WEC 데뷔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이몰라 6시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 및 차량 완주에 목표를 두고 레이스를 진행했다.

높은 트랙 난이도 및 레이싱 경험을 축적한 기존 레이싱팀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GMR-001 하이퍼카 2대가 결승점에 도달함으로써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앞서 제네시스는 지난 2024년 12월 WEC 출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자체 차량 개발, 정예 드라이버 및 운영진 구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일 제조사 팀을 꾸려 WEC 출전을 준비해왔다.

특히 25,000km에 달하는 트랙 테스트를 통해 차량의 내구성과 주행 안정성, 레이싱 운영 능력 확보에 주력했으며, 다수의 곡선과 요철 구간으로 이뤄진 이몰라 서킷 특성에 맞춰 엔진 성능 등 차량 상태를 최적화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이번 WEC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차량 완성도 및 레이싱 운영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자평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 시릴 아비테불(Cyril Abiteboul)은 “신규 참가 팀으로서 이번 대회 핵심 목표는 성능이 아닌 신뢰성과 실행력이었으며,



PRESS RELEASE

프롤로그부터 레이스까지 계획한 바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초가 매우 탄탄하다는 점과 팀의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7 차량의 안드레 로테러(André Lotterer) 선수는 “날씨 변수로 타이어 전략에 미세한 판단 미스가 있었으나, 피포 데라니(Pipo Derani) 선수가 끝까지 잘 버텼다”며 “이번 레이스를 통해 다진 탄탄한 기초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다음 달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시즌 두번째 레이스 ‘스파-프랑코샹 6시간(6 Hours of Spa-Francorchamps)’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편 FIA WEC은 SPOTV, SPOTV Prime 채널과 SPOTV NOW에서 국내 생중계된다. [끝]

<사진 설명>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2026 WEC> 성공적으로 데뷔

제네시스는 소속 레이싱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enesis Magma Racing)’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6 WEC 개막전 ‘이몰라 6시간’ 최상위 등급에 출전해 GMR-001 하이퍼카(Hypercar) (2대 모두) 레이스를 완주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1) (왼쪽부터) GMR-001 Hypercar #17 차량과 #19 번 차량 뒤에 서 있는 마티스 조베르(Mathys Jaubert), 안드레 로테러(André Lotterer), 피포 데라니(Pipo Derani), 마티유 자미네(Mathieu Jaminet), 다니엘 훈카데야(Daniel Juncadella), 폴-루 샤탕(Paul-Loup Chatin)



PRESS RELEASE

이미지 2) GMR-001 하이퍼카 #17 차량

이미지 3) GMR-001 하이퍼카 #19 차량

이미지 4)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피트에서 정비 중인 GMR-001 하이퍼카
#19 차량

이미지 5) GMR-001 하이퍼카 #19 차량 클로즈업

이미지 6) GMR-001 하이퍼카 #17 차량